

학교 밖 청소년 전복에듀페이 확대

전북자치도교육청, 작년 16~18세에서 올해 9~18세로 15일부터 교육청·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서 신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4년 전복에듀페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는 도내 모든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학업 중단한 청소년 연령 9~18세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고등학교 단계(16~18세) 청소년에게만 지원했다. 지원 금액은 9~15세 학교 밖 청소년은 매월 5만원, 16~18세 학교 밖 청소년은 매월 10만원을 바우처로 지급하며, 전복에듀페이카드(체크카드 형태)를 발급받아야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오는 15일부터 주소지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미설치지역은 청소년상담센터 등을 방문하면 된다. 다만, 군산, 부안 지역은 전북교육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인근 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최초 신청 후 바우처를 추가로 지급받기 위해서는 매월 신청 기간에 전복에듀페이 신청시스템을 이용해 신청하고, 지원자격 확인을 위해 분기(2024년 경우 7월, 10월)마다 신청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청소년상담복

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서거석 교육감은 "전복에듀페이 지원을 통해 도내 재학생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내에서도 학업을 지속하도록 돕겠다"면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소외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복에듀페이 누리집이나, 전복에듀페이 지원 콜센터(063-239-0845~0847, 085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신입생 적응력 강화 도모 전주대, 학생회관서 행사

전주대학교(총장 박진배)는 5~6일 2일간 학생회관 일원에서 2024학년도 신입생 적응력 강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신입생이 대학에 입학해 선배·동기들과 각종 동아리 활동을 비롯한 다양한 활동을 통한 끈끈한 관계 형성을 도모하고, 진로·전공 탐색 기회 제공을 통한 학습 선택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각종 제도 및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총 30여 개의 다채로운 부스가 준비됐다. 특히, 학생취업처는 또래 활동 분야(중앙동아리), 진로·전공 탐색 분야, 대학 생활 지원 분야를 신입생 스스로 관심과 흥미에 따라 선택해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북대학교가 올해 '천원의 아침밥'을 시작한 가운데, 5일 오전 전북대 학생식당인 후생관에서 양오봉 총장과 학생들이 새학기 아침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

전북대 올해 천원의 아침밥 본격 시작... 2만4000명에 제공

지난해 하루 150명씩 총 1만7400명에 제공 양오봉 총장, 학생들과 함께 새학기 아침식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올해 2만4,000여명의 학생에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전북대와 전북대 총동맹회, 발전지원재단, 동문 기부 등이 더해져 하루 200명의 학생이 아침밥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이는 지난해 하루 150명씩 모두 1만7,400명에 제공한 것에 비해 대폭 확대된 것이다. 천원의 아침밥을 본격 시작한 첫날, 판매 앱(이츠미)을 통한 선착순 판매 수량인 식권 200개가 매진돼 현장에서 추가로 식권을 판매하는 등 학생들의

호응이 매우 높았다. 이날 오전 8시 20분부터 전북대 학생식당인 후생관에서 양오봉 총장과 최병선 총동맹회장 등이 직접 나와 학생들과 새학기 아침식사를 함께했다. '천원의 아침밥'에 나온 메뉴는 황태두부국, 소불고기담면볶음, 메추리알조림, 과일샐러드 등이다. 이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 아침식사 습관화와 쌀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농식품부와 대학이 함께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정부 지원 단가가 지난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됐고, 1

식 단가도 4,500원에서 5,000원으로 향상시켜 더 많은 학생들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학생들과 식사를 함께한 양오봉 총장은 "올해 지원 규모를 더욱 늘려 새 학기,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병선 총동맹회장은 "천원의 아침밥이 지난해보다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더 많은 후배들이 든든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동문들의 마음을 모아 중간고사 간식나눔이나 저녁식사로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국립군산대, 11일부터 2024 생활과학교실 1기 운영

국립군산대학교 새만금첨단의융합센터(센터장 유수창)는 11일부터 2024년 생활과학교실 1기를 운영한다. 생활과학교실 1기는 지자체별 창의 과학교실, 나눔과학교실 등 32개소에서 구 1회, 개소 당 10회, 총 320회 교육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태양광주택 △인체의 비밀 △물의 여행 △바람자동차 △모터의 구조 △보글보글~리버랩 △코프셀아트 △우주왕복선 △전해질을 찾아라! △라이스페이퍼 등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자세한 교육 일정 및 세부 프로그램 내용은 군산대학교 생활과학교실 네이버카페(<http://cafe.naver.com/lsscienceclass>), 서천군은 서천군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http://life.seocheon.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원기금,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서천군 지원금으로 진행되는 생활과학교실은 강사비는 전액 무료이며, 학생은 재료비를 부담하고 있다. 사회배려대상자의 경우에는 재료비 또한 무료로 진행된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기술진흥기금 및 복권기금의 재원으로 운영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생활과학교실의 성과물이다. /군산=김판관 기자

프랑스 주요 대학과 국제교류 네트워크 강화

전북대, 파리 시테 대학 등 8곳과 교류 논의... 실질적 학생 교류 협력 성과 거둬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프랑스 우수 대학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국제 교류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다. 이에 따르면 최근 조화림 국제처장이 프랑스 파리 시테 대학과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 팜데옹 아사스 대학, 보르도 몽테뉴 대학, 파리 정치대학, 르아브르 노르망디 대학, 리옹 국립응용과학기술대학, 리옹 3대학 등을 방문해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먼저, 파리 시테 대학과의 국제교류 협정을 통해 공대와 인문사회대, 한국학과 학생 등에서 교환학생 10명을 내년부터 교류하기로 하고, 치대와 간호대는 특별 프로그램 운영을 논의했다. 올해부터 화학과 컴퓨터과학 및 수학, 물리, 바이오메디컬, 생명과학, 지구과학 분야에서 우선 교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어 국립동양언어문화대학과는 이미 2010년부터 협정 체결, 매년 활발히 교류하고 있다. 현재 30명의 전북대 학생이 공부하고 있다. 이번 논의를 통해 이 대학은 올 9월부터 5~6명의 학생을 전북대에 파견하기로 했다. 광데옹 아사스 대학은 내년 3월부터



조화림 전북대 국제처장이 리옹 3대학을 방문해 국제교류 등을 논의하고 있다.

법대, 경제학과, 정치학과, 공대(디지털 정보전산) 등에서 학생을 교환하기로 했다. 조만간 이 대학 총장과 부총장 등이 전북대를 방문해 공식 교류협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협약을 체결한 바 있는 보르도 몽테뉴 대학과도 올 9월부터 5~7명의 학생 교류를 시작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2월 양오봉 총장 방문 당시 양 대학 간 교류를 축하하는 기념식수를 삼기도 했다. 이 밖에도 파리 정치대학과 르아브르 노르망디대학, 리옹 국립응용과학기술대학, 리옹 3대학 등과도 구체적인

협정 체결을 통한 학생 교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파리 정치대학과는 2025년 교류 시작을 목표로 올해 협정 체결을 추진해 전북대 국제인문학과 상대, 사회대 등으로 초청 교환학생을 파견하는 데 잠정 합의하고, 르아브르 노르망디대학과는 올해 상반기 이 대학 총장단이 방문해 2+2 공동학위제와 학생 교류, 교수 간 공동 연구를 추진기로 했다. 리옹 국립응용과학기술대학도 올 상반기 전북대를 방문해 협정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교환학생 및 복수학위제, 공동지도교수제를 시작하기로 합의하고, 리옹 3대학도 대표단이 전북대를 찾아 협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조화림 국제처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프랑스 내 한국에 대한 인지도와 위상이 크게 상승했음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프랑스 우수 대학과의 협력으로 전북대의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 프로그램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우리대학이 글로벌허브 대학으로 나아가는 데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주고등학교 제31회 졸업생인 황은규 삼일장학회 이사장이 2024학년도 전주고등학교 입학식에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사진=전주고등학교 제공)

황은규 삼일장학회 이사장, 장학금 전달

'모교' 전주고 입학식서... 후배 학생들에 총 5400만원

삼일장학회 황은규(전주고 31회 졸업) 이사장이 2024학년도 전주고등학교 입학식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 36명에게 150만원씩 총 5,4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황 이사장은 30대 초반부터 양돈을 한 축산인으로, 전주축협 이사

올 현장 지원 예방 감사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

전북자치도교육청, 올 종합감사 66곳 대상 진행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도 감사 대상기관에 포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년 현장 지원 예방 감사 및 자율적 내부통제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북교육청의 자체 감사계획에 따르면 올해 종합감사는 66개 기관·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도 종합감사 대상기관에 포함됐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사전 부패 차단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갈등 사제집 발간 및 감사 우수사례 발굴 △감사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먼저, K-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의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활용해 매 분기 1회 자율적 내부통제의 날을 운영한다. 업무담당자 스스로 행정업무 오

류 시정을 위한 자기통제 및 감사기능 수행 시스템으로 도교육청 각 부서는 물론 교육지원청, 직속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교육비특별회계 출납사무 감사도 운영한다. 회계사고 예방을 위해 인사발령 등에 따른 출납원 변경 시 출납사무 감사 자료를 감사관실에 의무 제출하도록 하고, 출납사무 감사 결과 이상 발견 시에는 즉시 감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적발·처분 위주의 감사가 아닌 지원과 예방 중심의 감사행정으로, 사전 부패 차단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했다"면서 "현장지원 중심의 지원 감사를 강화하고, 예방적 감사행정 구현으로 더 깨끗하고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성 기자

협력적 배움 지향, 교사·학생 성장 도모

전북자치도교육청, 2024학년도 교육학습공동체 모집 교사연구회 390·연구회 153·학생동아리 348팀 등 선정될 경우 12월까지 활동 팀당 최대 500만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학년도 교육학습공동체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교육학습공동체란 교원 또는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 활동으로서 연구회, 교사연구회, 학생중심동아리(구 사제동행) 등 세 분야로 이뤄져 있다. 이에 전북교육청 각 사업부서에서는 △교과 및 범교과 교사들의 수업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교사연구회 390팀 △교과(비교과) 연구를 목적으로 교원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는 연구회 153팀 △교사와 학생이 함께하는 교육 활동을 지원하는 학생중심동아리 348팀 등 총 58개 사업, 891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학습공동체는 협력적 배움을 지향하고, 교사와 학생의 일관 성장을 목표로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올해 분청 및 지역교육청과 지속기관이 교육학습공동체 누리집을 통해 공모방식을 일원화 해 운영한다. 더불어 중간보고회 및 컨설팅이 신

설되고, 교육학습공동체 운영의 날을 통해 일반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교원은 도교육청 누리집 내 교육학습공동체(<https://www.je.go.kr/group/index.je>)에서 사업별 공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 기간 내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교과 및 학생생활지도 역량 분산 방지를 위해 교원 1인당 3팀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사업부서별로 발표된다. 선정된 교육학습공동체는 3월부터 12월까지 활동하게 되며, 각 팀당 150만~500만원이 지원된다. 서거석 교육감은 "교육학습공동체는 협력적 배움을 지향하고, 교사와 학생의 일관 성장을 추구한다"면서 "더 특별한 전북교육 실현을 위해 교육학습공동체 활동이 교원들의 수업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